

1.

피고소인(임태준)은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서, [REDACTED]은 그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입니다. (화,목 12:30-13:45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관 M304 강의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모욕죄, 교육환경 침해, 협박죄, 업무상 위력추행으로 고소하오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2.

피고소인은 2025년 9월 2일 강의 직후에 “요즘 학식이 너무 비싸지 않나요? 전에 상록원 식권을 받아둔 게 있는데, 오르막길을 올라가기가 귀찮아서 상록원에 가서 못 먹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장하고 더러운 눈빛으로) 고소인은 수강하는 거의 모든 강의에서, 강의를 마치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나갑니다. 이 날도 감사인사를 하며 강의실을 나섰고, 피고소인도 “감사합니다”하고 대꾸를 해줬습니다.

3.

고소인은 2025년 7월 29일, 교외 생활비성 장학금을 지원하며 가정형편과 건강상태에 대한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직접, 간접적으로 이 내용을 접하고 취약한 상태에 있는 학생을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9월 9일 화요일, 고소인은 앞쪽 자리에 앉아 강의를 수강했고, 저번시간에 진도 어디까지 나갔는지 묻는 피고소인의 질문에 답하자 피고소인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찻잔 하기도 했고, 학식 이야기를 한 피고소인의 의도가 의심되어 피고소인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강의를 수강했고, 역시나 강의 끝에 감사인사를 했지만, 피고소인은 이에 대꾸해주지 않고, 정색하고 컴퓨터만 응시했습니다.

4.

2025년 9월 11일 목요일 강의 시작시점, 앞자리에 앉아있는 고소인을 보고 피고소인은 신경질적으로 교탁 위에 물건을 집어던지고 위압적인 태도를 보여 공포감을 느꼈고, 이는 고소인을 수업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12:30-13:45) 이에 뒷자리에 앉아 있던 커플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업무상 위력추행의 구성요건 및 협박죄, 교육환경 침해, 협박죄)**

5.

2025년 9월 23일 화요일부터 고소인은 같은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과 같이 앉아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6.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강의 직후, [REDACTED] 학생이 미국 대학원 진학과 관련하여 교수님께 질문을 했고, 강의 후에 같이 커피를 마시러 가기로 하여 저는 피신고인의 질문 답변 내용을 들으며 [REDACTED] 학생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도 대학원 진학에 관심이 있어 관련하여 피고소인과 대화를 나눴고,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가까이 다가와 책상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피신고인은 제게 “기다려주는거야?”라고 물었고, 이한석 학생은 “누나 커피사주기로 해서..”라고 답변했고, 고소인 또한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둘이 원래 아는사이야?”라고 피고소인은 질문했고, [REDACTED] 학생이 “아뇨, 강의 듣다가 친해져서” 라고 답변했습니다. “둘이 동갑이야?”라는 피고소인의 질문에 “아뇨, 재가 3살 어려요.”라고 고소인이 답변하자, 피고소인은 “동생이 건방지네” 라고 말했습니다. **(모욕죄)**

결국 피고소인은 [REDACTED] 학생을 2시까지 붙잡아뒀고, 고소인은 커피를 먹지 못하고 바로 다음 강의에 들어갔습니다.

7.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강의 중, 피고소인은 강의를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고소인과 눈을 마주치려고 하며, 마주칠 때마다 피식 피식 웃으며 굴욕감을 주었고, 고소인이 정색하자 놀랐습니다.

8.

2025년 11월 19일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언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 수업참여에 어려움을 겪어 카운슬링 센터에 해당 내용으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개인상담 신청사유에 ‘현재 수강하는 강의 중 한 강의에서’라고 기재하여 당사자를 찾는 과정에서 교수님들 사이에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9.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고소인은 강의에 3분 정도 늦게 들어갔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강의실 뒤쪽으로 들어와 앉는 것을 보고 피고소인은 창가쪽 허공을 응시하며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짓는 등 지속적인 주시, 위력적 행동을 보였습니다. 강의 중간중간 이유없이 뜸을 들이며 고소인의 이목을 끌어 눈을 마주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의를 끝나자마자 고소인은 강의실을 나섰고, 보통 학생들의 질문을 받는 피고소인은 바로 고소인을 뒤 따라 나왔습니다. 질문을 하려는 학생이 피고소인을 멈춰세워 접촉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소인의 접근 시도에 고소인의 공포감은 더욱 심해져 아직 강의를 끝나지 않은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보복범죄)**



10.

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고소인은 교내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신고서를 제출했고, 당일 피고소인의 강의에 참여했고 강의 내내 피고소인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강의를 마치는 듯한 마무리 멘트를 하는 것을 듣고 노트북을 닫았고, 이 모습을 본 피고소인은 1시간 45분을 채워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평소 강의시간은 평균 1시간 정도였습니다. **(보복범죄)**

11.

피고소인의 언행으로 고소인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 수업 참여의 어려움, 안전 불안 등을 겪고 있습니다.